

1. 주식의 이해
2. 일상적 거래제도 (1) - 거래구조 예탁구문
3. 일상적 거래제도 (2) - 시간 가격범위 수수료
4. 특수한 거래제도
5. 계좌 관리 주문

1. 주식의 이해

주식의 개념

주식 : 기업의 지분권

주식의 사전적 뜻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이며 그에 대한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기업을 만들기 위해 돈을 낸 동업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기업을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기업을 만들 때 각자가 낸 돈의 크기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증서를 만들었고,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된 회사의 기업규모는 매우 커서 그 전체의 소유권을 한 번에 양도하기는 어려운데, 주식은 규격화된 크기로 잘게 나누어져 있기에 권리를 양도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개 5000 원, 1000 원, 500 원 등의 소액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

주식의 소유자 즉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기에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며 기업의 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익을 주주에게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업을 해체하기로 한다면 빚 등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주식 소유량에 따라 나누어주게 됩니다. 이를 잔여재산분배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신규로 발행할 때 우선적으로 신청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수익과 경영참여

주식투자는 사 놓은 주식의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방법 외에 위와 같은 배당이나 신주인수 권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기에 필요한 때마다 기업경영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주주가 다 모이는 총회인 주주총회입니다. 여기서 찬반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주식수에 따라 표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배당 등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주 / 우선주

배당 의결권 여부에 따른 분류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두 권리인 배당수령과 경영참여(의결권)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주식의 종류가 나뉩니다.

배당을 강조하여 보통의 주식보다 배당(또는 회사를 정리할 경우 잔여재산분배)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이런 우선권이 있는 대신 경영참여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배당을 안 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게 되면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우선주에서 의결권이 영속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개선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 신형우선주입니다. 배당은 회사 이익 발생 여부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아예 최저보장 배당률을 정해놓은 경우도 신형우선주에 해당됩니다.

구 분	내용
보통주	주주가 가지는 각종의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 주식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서 선순위 후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임
우선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같은 재산적 이익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주식 대신 경영참여를 위한 의결권이 없음
신형 우선주	우선주 중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바꿀 수 있게 한 것 또는 최저보장 배당률을 정해 놓은 경우도 신형 우선주에 해당 됨

시가총액 / 액면가 / 자본금

시가총액

주식은 분할된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낸 것이기에 주식 총수에 주식가격(주가)를 곱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됩니다. 주가는 증권거래소라는 시장에서 구해지게 되며, '주식의 총수 X 주식가격'으로 구한 금액을 시장가격으로 구한 총액이라 하여 시가총액이라 합니다. 시가총액만큼의 돈이 있으면 그 기업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액면가

주식을 보면 액면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주식은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권)의 하나인데 유가증권은 대개 액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면가란 그 증권의 표면에 써 있는 가격이며 이 증권의 기본적인 가치를 나타냅니다.

주식의 경우 액면가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보통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주주는 주식을 받고 투자금을 냅니다. 주식의 표면에는 5000 원, 1000 원 등의 값이 쓰여 있고 낸 돈의 크기에 맞는 갯수를 받게 됩니다.(예: 1000 만원을 냈으면 5000 원 액면의 주식 2000 장을 받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매우 유망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되면 서로 주식을 사려고 하므로 액면값 보다 돈을 더 주고 주식을 사게 됩니다.(예: 5000 원 액면의 주식 2000 장은 액면 총액은 1000 만원이거나 사려는 사람끼리 경쟁이 붙으면 1200 만원을 주고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서로 그 주식을 사려고하므로 주가는 액면가보다 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주주를 모집하면 대개 액면가보다 더 돈을 내고 주식을 사게 됩니다. 회사의 수익이 충분치 못하면 서로 주식을 팔게 되며 이 때는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본금

기업은 주주에게서 받은 투자금에 대해 장부기록을 하는데 장부에는 자본금이라는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액의 합계(=주주들이 사 준 주식수의 합계 X 액면가액)를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주주들은 액면가대로 돈을 주고 주식을 받아 갑니다.(유망한 회사이면 액면가액보다 더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 설립을 위해 투자된 돈의 크기를 나타내고 쉽게 말해 기업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시가총액(=주가 X 주식총수)이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증권거래소의 가격같은 신뢰성 있는 가격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본금(=액면가 X 주식총수)이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배당

기업가치 주주가치 변동의 개념

기업가치는 '주가 X 주식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가치는 변화 없이 주식수만 변하면 주가가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기업재산으로 주주에게 돈을 내어 주면 기업가치가 변하므로 주가가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가 변화 원인이 명확한 경우 주가 변동을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시장에 반영됩니다.(예 : 권리락, 배당락) 이런 계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기업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냐 빠져나가느냐의 여부와 투자자 입장에서의 가치변동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배당과 주가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배당은 1 년마다 하거나, 분기나 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시 현금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주식을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배당을 주면 기업의 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는 것이어서 주가는 그만큼 변하게 됩니다. 증권시장에서는 배당락이란 말이 쓰이는데 이는 배당 때문에 인위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주가를 변동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현금 배당시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강제로 주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배당을 받을 권리의 기준일이 지나면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유망하다고 보아 계속 보유하려는 사람이 많다면 가격 변동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배당이란 회사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하면 주주에게 주는 것(주식)은 있지만 현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입장에서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해 나누어주므로 주식수는 늘게 되고 그 만큼 주가도 조정을 받게 되지만 주주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맞추어 주식수가 늘어났으므로 손실은 없습니다.

배당 전후의 기업가치와 주가

배당전 기업가치 =
배당 + 배당후 기업가치

기업가치를 '주가 X 주식수'로
나타내면

배당전주가 X 주식수 =
배당액 + 배당후주가 X 주식수

증자 감자

증자

자본금은 '주식수 X 액면액'으로 구하는 데 주식수를 늘리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를 증자라고 합니다. 주식수를 늘릴 때 실제 외부에서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뉘게 됩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의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돈을 주고 사는 방식이며 외부에서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는데 드는 돈을 기업의 기존 이익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늘어난 주식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나누어주게 됩니다. 주식배당과 비슷하나 회계처리, 세금 등에 대해 약간 차이 나게 됩니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셈이나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인 주식으로 준 것이기에 기업에서 돈은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실제의 기업가치의 변동은 없고, 회계상의 이름만 변동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처럼 느껴지고 또 무상증자를 하려면 기업에서는 충분한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무상증자 소식은 기업이 튼튼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며, 시가보다 저렴하게 발행하기도 하므로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감자

감자는 증자의 반대말이며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기업이 주주에게 댓가를 주고 주주의 재산인 주식을 없애는 것이 유상감자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없애는 방식도 있는데 이를 자사주 매입소각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감자를 위해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돈은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된다고 하여 실질적 감자라고도 합니다.

무상감자는 주주에게 돈을 주지 않고 주식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회사 경영이 잘 못 되어 재산을 탕진한 경우 주주에게 책임을 물어 내 놓았던 재산인 자본금을 강제로 줄여버리는 것이 무상감자입니다. 무상감자의 목적은 경영에 실패한 기존 주주에게 책임을 묻고 기업 회생을 위한 신규 자금의 유입을 원활토록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새로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기존 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합니다.(상대적으로 기존주주는 불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무상감자는 대개 주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주가지수

주가지수의 개념

주가지수란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값입니다. 물가지수처럼 경제를 대표하는 지수 중의 하나입니다. 주가지수는 대개 거래소별로 구해집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소를 하나만 두는 방식을 취하기에 주가지수의 종류가 적지만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소가 여러 개이기에 주가지수도 여러 개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크게 3 개로 나뉩니다. 유가증권시장(구 거래소시장, 코스피(KOSPI)시장), 코스닥시장(KOSDAQ, 증권업협회중개시장), 프리보드(FreeBoard, 구 제3시장)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역사가 오래되고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식과 채권 등이 거래됩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됩니다. 프리보드시장에서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기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 등의 주식을 거래하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매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보호 제도가 있으나 프리보드시장은 그렇지 못하기에 장외시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가지수와 주식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이며, 그 자체가 경제지표의 하나이기도 하고, 개별 종목의 수급에도 주가지수가 영향을 주기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령 '00 종목의 주가가 왜 올랐느냐'는 물음에 대해 '주가지수가 오르면서 장 분위기가 좋았기에 00 종목도 따라서 올랐을 것이다'라는 대답도 가능합니다. 이런 개념을 통해 주식의 가치평가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주가지수 계산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는 코스피지수(예전의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가 대표적입니다.

주가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종목의 주식으로 단일의 값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각 종목의 시가총액을 더해 일정값으로 나누어 구하게 됩니다. 코스피지수의 경우 1980년 첫 거래일의 주가지수계산값이 100이 되도록 정하였고, 매 순간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을 감안한 주가지수를

거래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부터 시장이 개설되었기에 코스피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기간이 짧습니다.

다양한 주가지수와 그 활용

주가지수에는시장종합형 지수외에 공통성을 갖는 종목끼리 묶어 만든 지수도 있습니다. 업종별지수, 선물투자를 위한 지수(KOSPI200, KOSTAR 등), 배당지수, 섹터별지수 등이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의 동향을 알려주는 역할 외에 펀드의 자산운용 평가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코스피지수라는 것을 살 수만 있다면 이를 사놓고 가만히 두면 최소한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움직임만큼은 손익을 얻게 됩니다. 펀드에서는 전담 관리자가 일일이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평균적인 등락보다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코스피지수의 등락은 펀드수익률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으며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도 지수보다는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주식투자를 할 때, 주가지수의 중장기적 전망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므로 주가지수와 업종지수 기타의 지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표적 주가지수

구 분	내 용
KRX100 지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대형우량주 100 종목에 대해 구한 지수
코스피지수(KOSPI)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주식에 대해 시가총액식으로 구한 지수
코스닥지수(KOSDAQ)	코스닥시장 전체의 주식에 대해 시가총액식으로 구한 지수
배당주가지수(KODI)	배당 등 주주를 중시하는 기업 위주로 50 종목에 대해 구한 지수
기업지배구조지수(KOGI)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50 종목에 대해 구한 지수
KOSPI200 지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에 대해 구한 지수. 선물 거래에 쓰임
KOSTAR 지수	코스닥 시장의 30 개의 대형우량주에 대해 구한 지수. 선물 거래에 쓰임

2. 일상적 거래 제도(1) – 거래구조 예탁주문

거래구조

거래의 신뢰성 문제

주식거래는 대량의 거래가 빠르게 체결되므로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거래를 하게 되면 물건만 받고 돈을 내지 않는 경우(이를 결제불이행이라 합니다.)가 생깁니다. 경매를 통한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런 일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에서는 개인간 직거래보다는 물품 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경매운영업체에 맡긴 뒤 물건수령이 확인된 후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 문제 외에 시장참가 자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처럼 대형시장의 경우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거래가 어려워지며 위험성이 생기기때문에 회원제 등의 방식으로 참가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고객이 물건을 사고 싶으면 참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대신 주문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의 구조

증권거래소도 위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라는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증권거래소회원이라 말하며 주로 증권사들이 회원으로 참가합니다.
일반투자자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맡겨 주식매매 주문을 하며, 증권사는 주문을 시장(거래소)에 전달하며, 가격과 수량이 맞는 상대방이 있으면 체결됩니다. 투자자는 증권사에 자신의 주문을 맡기는 방식이어서 주식매매계좌를 위탁계좌라고도 합니다. 증권거래소에는 증권사에 이미 매매대금이나 매매할 주식이 있음이 확인된 주문만 들어오게 되므로 떼일 염려(결제불이행 염려)는 없게 됩니다. 가끔 증권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를 대비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는 각종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래 개념도〉



체결원칙

가격 시간 수량 우선원칙

주식거래시에는 경매의 원칙이 적용되어 적극적인 주문부터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부르는 것을 호가라고 하는데 매수시에는 비싸게라도 사겠다는 것(높은 매수호가)이 우선하고, 매도시에는 싸게라도 팔겠다는 것(낮은 매도호가)이 먼저 체결됩니다. (가격우선원칙)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주문을 낸 사람이 우선 체결됩니다. (시간우선원칙) 주문접수시간까지 같은 경우에는 주문수량이 많은 것부터 체결시킵니다. (수량우선원칙) 가방에 짐을 넣을 때 큰 것부터 채우고 작은 것을 나중에 채우듯이 주문체결도 큰 것부터 처리하고 작은 것을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격우선원칙

적극적인 호가 우선(매수시 높은 가격, 매도시 낮은 가격)

시간우선원칙

가격이 같은 경우 먼저 접수된 것부터 체결

수량우선원칙

가격과 시간이 동일한 경우 수량이 많은 것부터 체결

증권거래의 구조

대표적인 주문인 지정가 주문에 대해 체결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정가주문이란 어떤 가격을 정해 사거나 팔겠다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 주문은 정확히는 지정가격 또는 그보다 유리한 가격에 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가령 00 주식을 10000 원에 100 주 사자고 주문했을 때, 시장에서는 9500 원에 50 주 팔자, 9700 원에 130 주 팔자, 10000 원에 2000 주 팔자는 주문이 나와 있다면 주문한 가격인 10000 원에 100 주가 사지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유리한 가격인 9500 원에 50 주, 9700 원에 50 주가 체결됩니다. 따라서 주문가격과 체결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 참조)

주문의 예

매도주문		매수주문	
가격	수량	가격	수량
10000원	200주		
9700원	130주		
9500원	50주		
		9200원	100주
		9100원	150주
		9000원	180주

예탁결제제도

증권예탁제도

주식을 거래할 때 돈을 받고 주권이라는 종이증서를 주는 방식으로 거래하면 위조여부의 확인, 운반 및 보관 등이 불편합니다. 실제로는 증권을 특정기관에 모두 맡겨놓고 거래마다 사거나 팔았다는 장부기록만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를 증권예탁제도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탁을 받는 기관이 증권예탁원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집중예탁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차감결제제도

주식은 하루에도 수십 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매매시마다 실제의 결제(현금과 주식이 실제로 인수인도 되는 방식)가 일어나면 너무 번거롭게 됩니다. 또 거래소에 대해 실제로 주문을 내는 것은 고객이 아닌 증권사이기에 증권사로 모인 여러 고객의 주문 체결을 일일이 결제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차감결제가 나타났습니다.

차감결제는 거래자별로 같은 종목을 사는 것과 파는 것이 중복될 때 서로 감하여 최종적으로 순수하게 받아가야 할 부분만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차감결제의 예를 든다면 가게에서 50000 원어치를 외상으로 사고 나중에 가게주인에게 40000 원을 빌려주었다면 순수히 물건값을 내야 할 부분은 10000 원으로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중복된 것을 서로 없애 계산한다고 하기에 '상계'라고도 합니다. 이같은 차감을 통해 결제 업무량을 줄인 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을 하여 매매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증권 매매 후 실제 결제까지는 2 일이 더 걸립니다.

거래당일 재매매

결제업무를 손으로 일일이 장부정리해 처리하던 시절에는 매매후 2 일간은 다시 매매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결제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장부기록상으로는 즉각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결제 자체는 2 일이 걸린다하더라도 샀던 것을 팔고 그 현금으로 다시 사는 거래 등은 즉각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물적 시설이 갖추어지면서 데이트레이딩 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전산시설 도입으로 결제 완료 전 재매매는 가능해졌지만 현금을 출금하거나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의 작업은 2 일 후의 결제가 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금하려면 2 일 전에 팔아야 합니다.

2 일 지연 결제제도와 연관된 것들

거래 후 2 일 지연 결제 방식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있을 때 먼저 주주(주식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해야 하는데, 주식의 소유자는 계속 바뀌기에 특정일의 주식소유자가 회사의 주주라고 보게 됩니다. 이 때 위의 결제제도 때문에 주주로서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 특정일의 2 일 전에 주식매수주문을 내어 체결시켜야 합니다. 이 외에 미수거래제도에서 매수 후 2 일간의 기간을 주는 것 등 여러가지가 2 일 지연 결제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탁금 / 예수금

예탁금 예수금 D+2 예수금

고객이 증권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돈을 예탁금이라 합니다. 예수금은 기업회계에서는 '미리 받은 돈'의 뜻으로 쓰이는데 증권거래에서는 매매를 한 후 쓰지 않고 남은 돈을 뜻합니다' 주식거래를 하고 나면 그 매매의 결과는 2 일 뒤에 결제 완료 되기에 이 때에 비로소 돈이나 주식을 빼 갈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한 날(Trade Date: T 또는 D 로 표기)의 다음날을 D+1 일, 그 다음날(결제일) D+2 일로 표기하며 D+2 일의 예수금이 현재 매매의 결과를 반영한 돈이 됩니다.(증권사 HTS 등에서는 표기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TS 에서의 표시 예

체결 기준잔고 :
당일거래반영액

결제기준잔고 :
당일 입출금 가능한 금액

D+2 정산액 :
당일 체결시킨 것을 반영한 결과임

체결기준잔고		결제기준잔고		예수금현황	미수금현황	반대매매현황	신용잔고현황	익일반대매매예정
계좌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종목선택시 보유잔고 가상매매 <input type="checkbox"/> 시간외단일가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type="button" value="다음"/>								
예수금출액		익일정산액		D+2 정산액				
금일매수액		금일매도액		제비용금액				
주문가능액		유가평가액		총평가금액				
종목명	종목코드	종목구분	금일매수	금일매도	보유수량	주문가능	매입평균	매입금액
현재가	평가금액	평가손익	수익률					

호가규칙

가격변동단위

주식은 가격에 따라 변동단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100 만원짜리 주식을 10001 원에 사자, 10002 원에 팔자 식으로 주문을 내면 서로 맞추기도 힘들고 너무 가격변동폭이 작아 의미있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가격을 일정구간으로 나누어 구간 최대값의 1/1000 의 값을 가격변동단위로 씁니다. (예 : 주가가 0~5000 원인 구간에서는 가격변동단위는 $5000 \times 1/1000$ 인 5 원이 되어, 4500 원 4505 원 식으로 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가격구간과 가격변동단위

가격구간	~5000	~10000	~50000	~100000	~500000	~
가격변동단위	5	10	50	100	500	1000

- 코스닥의 경우 50000 원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모두 100 원씩 변동토록 함.
ETF는 지수의 정밀한 추적을 위해 위의 값보다 가격변동이 세밀하게 됨.

매매수량단위

주식매매는 1 주 또는 10 주씩 매매합니다. 유가증권시장은 과거 10 주 단위로 거래하던 관행이 있어 지금도 주가가 5 만원 이하인 경우 10 주 단위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1 주씩 거래합니다.

- 1주씩 거래 : 코스닥 전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가가 5만원 이상인 주식
- 10주씩 거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가 5만원 미만인 주식(2007년부터는 전종목 단주 거래)

주문의 종류

주식시장의 주문

주문 유형은 거래전략과 관계됩니다. 거래 전략을 가장 간략히 정형화한 것이 점차 굳어져 주문유형이 됩니다.(그 예로 선물시장에서의 스프레드거래 전략을 위한 주문 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쓰이는 주문을 살펴보면 지정가 주문 외에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등이 있습니다.

지정가 주문

지정가주문은 지정한 가격 또는 그보다 유리한 가격에 체결을 원할 때 씁니다. 주문 낸 가격에 부합하는 주문이 없으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시장가 주문

시장가주문은 가격없이 수량만을 지정하는 것으로 가장 적극적인 주문방식이며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상대호가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호가부터(매수주문시에는 싼 가격의 매도호가, 매도주문시에는 비싼 가격의 매수호가부터) 주문 수량이 모두 체결될 때까지 각각의 호가에 대해 체결시키는 것입니다. 상대호가의 주식수량이 충분치 않은 경우 체결되는 가격이 급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는 10000 원이고 10050 원에 팔자는 주식이 100 주, 10100 원에 팔자는 주식이 200 주, 10150 원에 팔자는 주식이 2000 주 있다고 합시다. 이 때 2000 주를 시장가로 매수하자는 주문을 넣으면 나와있는 호가 중 가장 유리한 가격인 10050 원에 100 주가 매수체결되고, 그 다음 10100 원에 200 주가 매수체결되고 나머지 1700 주(=2000-100-200)는 10150 원에 체결됩니다. 이같이 시장가주문에서는 주식의 양이 충분치 못한 경우 가격이 급격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가호가는 가장 적극적인 주문이기에 매수의 경우라면 주문가능한 가장 높은 가격(상한가)까지 올려서라도 사겠다는 뜻이 됩니다. 즉 상한가격에 대해 지정가 매수주문을 낸 것과 같습니다.(시장가 매도 주문이라면 하한가격으로 지정가 매도 주문을 낸 것과 같습니다.)

주문의 예

매도주문		매수주문	
가격	수량	가격	수량
10150원	2000주		
10100원	200주		
10050원	100주		
		9990원	200주
		9980원	150주
		9970원	300주

시장가로 2000주 매수주문을 하며,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10050원의 100주부터사고,10100원에 200주를 사고, 10150원에 1700주를 사서 2000주를 채우게 됩니다. 유리한 호가부터 체결시키기에 지정가 주문과 같은 체결구조를 가지며 수량을 다 채우기 위해서 모든 호가 범위의 매도주문(상한가까지의 주문)에 응한다는 의미이며 상한가로 지정가 매수주문을 낸 것과 같음.

최유리 지정가 주문, 최우선 지정가 주문

시장가주문과 지정가주문을 합쳐놓은 주문도 있습니다. 시장가주문은 주문수량이 다 체결될 때까지 가격이 주문자에게 불리한 방향(매수시 비싼 방향, 매도시 싼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처럼 체결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은 시장에서 바로 체결될 수 있는 값으로 정해지되 미체결분량에 대해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면서 체결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최유리지정가주문은 주문이 시장에 도달할 때 가장 유리한 상대호가(매도 주문의 경우 가장 비싸게 사주겠다는 호가,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싸게 팔겠다는 호가)의 가격으로 지정가 주문이 됩니다.

최우선지정가주문은 주문이 시장에 도달할 때 이미 있던 주문 중 가장 적극적인 호가와 같은 가격으로 지정가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매도의 경우 기존에 있던 가장 싸게 팔겠다는 가격, 매수의 경우 기존에 있던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가격으로 지정가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부 지정가 주문

위의 방식 외에 주문 방식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건부지정가주문은 시장 개설 시간중에는 지정가 주문이나 체결이 되지 않고 장이 끝나려고 하면 장마감시의 동시호가시간에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어 확실히 체결시키려는 것입니다.

주문유효기간 증권사별 주문

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주문들은 기본적으로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장마감과 함께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모두 취소됩니다.

요즘에는 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지는 않는 다양한 주문방법을 증권사별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약주문이나 연속분할매매주문 등이 있으며, 시스템트레이딩 기법을 이용한 주문도 있습니다.

주문의 예

매도주문		매수주문	
가격	수량	가격	수량
10100원	200주		
10050원	100주		
		9990원	200주
		9980원	150주

최유리지정가로 400주 매수 주문시 :

가장 유리한 상대호가인 10050원에 100주를
산 후 미체결잔량 250주에 대해서는 10050원
사자는 주문으로 남게 될

최우선지정가로 400주 매수 주문시 :

매수주문중 가장 적극적 호가인 9990원에
맞추어 400주 지정가 매수 주문이 될